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후 자이툰부대장 황의돈 소장과 악수하는 법장스님. 식당에 모인 500여 자이툰 장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법장스님 및 방문단, 이라크 자이툰 부대 위로 방문 헌장

# 아르빌에 연등 밝히고 세계평화 기원

## 종교지도자로 첫 방문...주둔지 시찰·법회 등 강행군



자이툰 아르빌 평화사 법회장면. 맨 왼쪽이 평화사 주지 법사 정연태 법사.

### 3600여 장병과 함께 식사 "하루빨리 평화 정착되길..."

"파병군인 여러분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한 위로 방문단은 5월 12일 오후 12시(현지시간 오전 11시)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중인 자이툰(아랍어로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부대를 방문, 3600여 군인들의 무사안녕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연등을 내걸고 병사들을 위로했다.

법장 스님은 아르빌 하울러 공항에 도착한 뒤 자이툰 부대장인 황의돈 소장의 영접을 받고 곧바로 이동해 지휘통제실에서 부대현황을 보고받은 후 시설을 둘러봤다.

법장 스님과 조계종 위문단은 자이툰 부대에 위문금 2만달러(2000만원)를 전달하고, 식당에서 500명의 장병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격려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싶고, 어려움이 있다면 전부 걸어갈려고 왔다. 건강한 모습을 보니 기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하루빨리 이라크에 평화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이툰 부대 황의돈 소장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이곳까지 찾아주시니 힘이 저절로 난다"며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에서 평화, 재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라크가 재건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장 스님과 조계종 위문단은 군법당 평화사주지법사 정연태 대위를 방문, 500여명의 불자 장병들과 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

은 법문을 통해 "장병들의 고통을 모두 나에게 다 주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만족의 보물을 선사하겠다"며 "이 보물은 고통이나 슬픔이 없고, 매일 좋은 날만 생기게 하는 보물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법장 스님은 아르빌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이툰병원을 둘러보고, 5월 4일 1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아르빌 폭탄테러 당시 부상을 입은 아흐야(6세)와 나우로즈(23세)를 위로했다.

스님은 아흐야와 나우로즈의 손을 잡고 쾌유를 기원했다. 아흐야 어머니는 법장 스님에게 "한국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보호하고 사랑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자이툰 부대는 병원진료, 현지 의료인 인턴십 교육, 각종 물자기증, 부대지원 건설공사, 문맹자 및 태권도 교실, 제빵제과, 자동차 정비 등 수준높은 기술교육원을 운영해 아르빌 현지에서 '한국군은 친구'라는 인식을 심고 있었다.

법장 스님과 조계종 위문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아르빌 하울러 공항에서 수송기를 타고 쿠웨이트로 나와 곧바로 귀국했다.

한편 이날 이라크 자이툰부대 방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 화계사 주지인 성광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수행사서 명정 스님, 사회국장 정업 스님, 군종실장 김말환 법사, 김상태 군법사와 실무자, 취재기자 등 17명이 동행했다.

글·사진/이라크 아르빌=김원우 기자

### ■ 미사일 위협 피하기 위해 비밀 운항... '작전' 방불



자이툰 부대원들을 실어 나르는 C-130 공군수송기 앞에서 1만2000km 무사고를 달성한 이해원 중령과 함께한 법장 스님. 이 중령은 매주 평화사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이다.

5월 10일 밤 12시경 인천공항을 출발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일행은 5월 12일 오전 8시, 쿠웨이트 도심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알리알살렐 기지에서 제58 항공수송단의 C-130 수송기를 타고 이라크 아르빌로 들어갔다. 쿠웨이트 알리알살렐 기지에서 이라크 북부 아르빌 하울러 공항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됐다. 탑승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두 헬멧과 방탄 조끼까지 갖춰야 했다.

수송기는 이라크가 위협지역임을 감안, 지상에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2만피트로 고공비행하고, 최고속도인 550km를 유지하며 이라크 남과 북을

관통했다. 아르빌에 도착해서도 착륙에 앞서 방향을 바꾸는 급전회와 창밖으로 땅바닥이 보일 만큼 양쪽으로 뒤돌아보는 곡예비행을 시도했다.

법장 스님은 오전 11시경 이라크 아르빌 하울러 공항에 도착한 뒤 4km 거리의 자이툰 부대로 향했다. 스님은 부대현황 브리핑을 들은 뒤 지휘관과 환담했다. 스님은 아르빌에 머문 4시간 동안 장병들과 점심공양, 위문, 법회, 연등걸기, 주둔지 견학 등 팍팍한 일정을 보냈다.

이라크 아르빌=김원우 기자

### ■ "장병들의 사기 북돋기 위해 찾아왔다"

법장 스님은 5월 11일 오전 8시(현지시간) 쿠웨이트에 도착, 공항 VIP실에서 송근호 쿠웨이트 대사의 영접을 받고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이라크행을 강행한 이유를 밝혔다.

법장 스님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종교계의 수장으로서 이라크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 장병들에게 힘을 주는 생각에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오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전사지역이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는 소리를 안했는데도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내가 위험하면 이라크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은 더 위험한 것 아니냐. 누구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고 말했다.

쿠웨이트=김원우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 730-0705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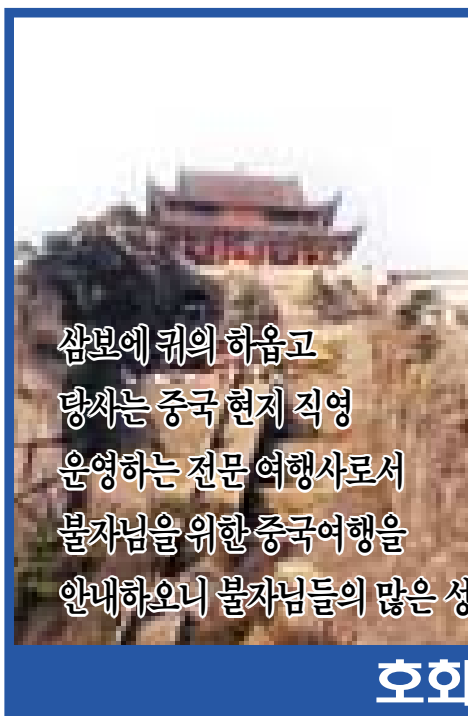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 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 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 일	전용버스	심전-소인국 민속촌 관광
5 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팀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티벳 성지 순례 8일 6월 9일 출발  
여행경비: ₩ 1,850,000원 (중국 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포함)  
왕자 스타르타에서 깨달은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묘음에 밀고 티벳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태국 성지 순례 6일 여행경비: 79만원 (10명이상 출발)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삼보에 귀의 하얏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